

전북

부안 요트장 수의계약 특혜 의혹

郡, 해상 설치실적 없는 업체와 18억 계약

부안군이 18억원의 요트계류장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납품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부안군은 최근 격포항 요트계류장 시설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 18억원(설계기준)을 계약하면서 특허를 소지하고 있는 서울소재 A사와 조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이 납품실적이 전혀 없는 A사를 선정된 표면적 이유는 계류장 설치와 관련,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용역실제시 A사가 콘크리트 부잔교에

밸러스트(부력조절기)를 부착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구조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계용역사에서 했다는 구조검사는 국가 공인기관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A사가 제공한 것을 기준으로 했고, A사의 특허 또한, 설계용역을 시작하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계약 체결 1개월 전인 9월 16일 에이 등록이 완료됐다. 동종업체 최고사장은 "해상에 설치하는 요트계류장은 파도나 해일 등 변수가 많아 설치 후에도 예측 못

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며 "부안군이 검증 안 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체가 유착 의혹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담당할 D사의 김모씨는 "구조검사는 전문회사인 A사의 자료를 받아 했고, 특허가 있는 것만이 설계에 반영된 것이 아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A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박모 계장도 "A사가 납품실적은 없지만

콘크리트 부잔교가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밸러스트를 내장한 특허가 있다"며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 3면이 감싸진 디자인으로 내구성 및 내구력 확보가 쉬워 A사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경쟁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최근 개관한 어진박물관에서 태조의 어진을 살펴보는 관람객들.

'불멸의 위엄' 조선왕릉 열렸다

전주 어진박물관 개관...태조 어진 등 공개

보물 제931호인 태조 어진(御眞·왕의 초상화)을 보관하고 전시할 어진박물관이 지난 6일 전주시 한옥마을의 경기전에 문을 열었다. 어진박물관은 경기전 내에 지상 1층, 지하 1층, 건물 면적 1194㎡ 규모의 목조 건물로 건립됐으며 어진실과 가마실·역사실·수장고·기획전시실 등을 갖추었다. 어진실은 조선 건국군 태조 이상계의 어진을 보관하는 곳이며 매년 1~2차례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된다. 태조 어진은 1410년에 처음 제작됐다가 1763년(영조 39년)에 한 차례 수리를 거치고 나서 1872년

(고종 9년)에 조종목이 모사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 150cm, 세로 218cm이다. 이 어진은 현존하는 어진 가운데 가장 오래된 데다 화폭이 크고 상태가 좋으며 각종 고서에 제작 과정이 자세히 기술돼 있는 등 문화적 가치가 커 보물로 지정돼 있다. 가마실에는 1872년 태조 어진을 봉안할 때 썼던 어진의 가마인 신연(神輿), 귀중품을 옮겨 실는 데 쓰인 가마인 채여(彩輿), 조선시대 고관의 행차 때 사용했던 가마인 가교(駕輿) 등이 전시된다. 역사실은 경기전에 태조 어진이 봉안된 이후 이에 얽힌 각종 유물

을 보관하는 곳으로 경기전의 내력과 건축·관리·의례 등을 수록한 경기전의(慶基殿儀), 1872년 태조 어진을 모사하는 과정을 기록해둔 '어진이모도감의궤(御眞移模都監儀軌)', 왕실의 변영을 기원했던 그림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 경기전 제례에 사용했던 각종 제기(祭器) 등이 전시된다. 어진박물관은 이날 개관식 이후 첫 전시회로 40기의 조선왕릉을 소개하는 특별전 '불멸의 위엄 조선왕릉'을 열었다. 박물관은 경기전 창건 600주년과 태조 어진의 경기전 봉안 600주년을 맞아 이날 개관했으며, 경기전 일대에서는 '태조어진 전주 봉안 600주년 기념대제'와 다양한 문화공연도 함께 열렸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확산

전북 시민단체협·종교연대 반대운동 결의

지리산을 끼고 있는 3개도(道) 4개 시·군이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단체들의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지리산종교연대 회원 20여명은 지난 6일 지리산 정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시민단체와 연대해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지리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만약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무성한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많은 입장객으로 지리산이 신음하게 될 것"이라며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어린도 남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정상에서 오를 등산객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 데 이어 오는 11~13일에는 지리산을 종주하며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협의회는 남원생활협동조합, 삼진감과 지리산 사람들, 지리산생명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지리산 인근 20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조만간 '지리산국립공원을 살리는 행동'을 조직한 뒤 백소령·장터목 등 5개 대피소에서 서명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정상에서 1인 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남원시, 구례군, 산청·함양군 등 4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를 면담해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리산 생명연대의 조희은 팀장은 "지리산은 그 넓은 품으로 수많은 동·식물을 키워냈고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사하고 있다"면서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시·군의 어떠한 목적과 견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둘레길 속 역사를 만나다

정음 '둘레' 회원 걷기 행사



사단법인 둘레(이사장 최기우)는 지난 6일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이야기꽃으로 피우는 역사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 (사)이벤트 참여해 정음동 정음사지(정음이 낳은 3층신을 향사하는 사유)를 시작으로 덕천면 상학마을 둘레길(2006년 등록문화재), 동쪽서원, 두승산 망제봉 아래 약천암(정음의 7우물 중 하나), 천곡사지7층 석탑(보물 제309호)을 둘러보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사)둘레는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부안 마실길 등이 보여주는 자연길에 정음적인 역사 문화 현장을 더한 역사둘레길을 되새겨 보는 의미로 행사를 마련했다. 2시간 걷기 코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무료한 단순 걷기를 지양하고 역사 속에 감추어진 사연을 이야기 꽃으로 피우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가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레연구소 안수용 소장은 "앞으로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역사길을 만들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세계도 반한 '진안 홍삼 와인'

국제 주류대회 '동상'... 신비의 동양 와인 호평

진안 홍삼와인이 홍콩에서 열린 국제와인·주류 경연대회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안군은 최근 홍콩관광청 주관으로 세계 62개국 525개 업체의 와인 62개종 가운데 1만2000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주류경연대회에서 진안 와인이 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진안 홍삼와인은 해외 수출과 현지화에 중점

을 두고 연구 개발된 상품으로, 외국 와인 애호가에게 신비의 동양 와인으로 호평받았다. 송영선 진안군수는 "세계대회에서 진안의 홍삼와인이 수상한 것은 홍삼의 뛰어난 가치를 입증받아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해 진안 홍삼의 브랜드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진안 홍삼와인은 미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출할 계획이며 국내시판보다 세계 수출을 위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복분자, 생산에서 유통까지'

고창·정읍·순창 농가·업체 '식품사업단' 발족

전국 복분자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북지역의 생산자와 가공·유통업체가 복분자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창군과 정읍시, 순창군 등 3개 시군의 생산 농가와 가공, 유통업체 관

계자 150여명은 8일 고창군청에서 '전북 복분자 식품사업단' 발족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복분자 사업단은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복분자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매 때 대기업과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립됐다. 사업단은 우선 농협과 함께 고창군(생산량 6천t)과 정읍시(2천800t), 순창군(2천400t)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의 수매와 유통을 담당해 수급을 조절키로 하고 세부적으로 공동 홍보와 마케팅, 경영, 물류의 현대화 추진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광역조직화 교육과 유통·가공업체에 대한 조직 진단, 생산과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사업도 병행키로 했다. [전북취재본부=조종욱기자 jo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in various locations like Gwangju, Jeonju, and Gwangju.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Taeyang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in Gwangju and Jeonju.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and sale, listing a property in Naju. Includes details on pric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premium apartment in Gwangju. Includes details on pric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